

## 도시재생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빈 점포 재생 방안: 액티브로컬

윤주선 부연구위원, 이혜원 연구원

### 요약

- 현행 도시재생 교육은 사업 현장과의 괴리, 실행 단계 맞춤형 교육 부재,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지나친 이론 중심의 교육이라는 한계가 드러남
-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6개월가량의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의 참여자에게 집중적인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데모데이(demo-day)나 공공 피칭(public pitching)을 통해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하는 과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군산시와 함께 영화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실행 단계에 집중한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액티브로컬'을 실시
-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역 기반의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창업에 적용한 군산시 액티브로컬은 국내 최초의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시도, 지역 내 실행가 발굴, 지역 간 실행가 네트워킹, 지역관 리회사 설립이라는 성과를 거둠

### 시사점

- 빈 점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목적의 근린 상권형 도시재생 교육은 일반적 지식 전달이 아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응용한 멘토링, 네트워킹, 시장 분석, 데모데이, 사업화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형 교육 방식으로의 재편이 필요
- 쇠퇴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재생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후속 실증연구 필요

## 1 기존 도시재생 역량강화 방식의 현황 및 한계

### ■ 도시재생 교육의 현황

-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공공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실행 주체
  - 도시재생 실행 주체의 역량과 전문성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임
  - 최근 지역 소상공인 등으로 도시재생 실행 주체가 확대되고 있음
- 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간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재생 교육의 중요성 증대
  - 도시재생 교육은 각 사업 단계별로 도시재생 경험이 적은 다양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도시재생법」) 제2조(정의)에서는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 중 하나로 ‘지역역량의 강화’를 들고 있음
-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서 강의와 토론 위주의 집체식 교육을 진행<sup>1)</sup>
  -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2017년까지 7회의 코디네이터 교육, 도시재생대학, 온라인 교육, 인재개발원을 통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을 진행
  - 8개의 광역지자체 및 25개의 기초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도시재생 교육과정 운영
  - 고려대, 경상대 등이 도시재생 관련 학위과정 혹은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건축학회·도시설계학회 등에서 전문가 교육 시행
  - 2017년 LH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관련 교육 예산 규모는 4.5억 원이었으며, 총괄코디네이터 교육 5개 지역 198명, 코디네이터·활동가 교육 13개 지역 677명, 지역 주민 교육 5개 지역 21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행
-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 교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이미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라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함<sup>2)</sup>

1)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 교육, p.3.

2) 국토교통부·LH도시재생지원기구(2018),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교육, 4p.

## ■ 기존 도시재생 교육의 한계

- 도시재생 단위사업과 단절된 도시재생 교육
  - 도시재생 교육이 실행 주체의 조직화, 단위사업의 실행과 연결되지 않은 채 개인에 대한 도시재생 정보 전달, 지식 학습에 그쳐 교육 이후 사업 추진과의 연계 부족
  -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일관성 필요
- 도시재생 ‘실행 단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부재
  - 대부분의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문제점 파악, 지역 잠재력 파악, 단위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계획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각 단위사업의 실행 및 운영 단계에 맞춰진 교육은 미흡
  - 특히 순수 주거지역 대상의 집수리 관련 교육 이외에 근린상업지역과 주거·근린상업 복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형 실행 단계 교육 프로그램은 부재
  - 교육 참여자가 실행 주체로 이어지기 어려워 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 계획을 만들지만 외부 전문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형태로 교육이 종결되는 경우 발생
- 사업 추진 과정에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흡
  - 사업 진행 과정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건물주, 투자자, 공간 운영자 등의 참여 없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음

## 2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액티브로컬 캠프의 시도

### ■ 일본의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현황

-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 IT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6개월가량의 단기간 내에 초기 창업자의 역량을 한 단계 가속화(acceleration)하는 역할을 함
  - Susan(2104)은 액셀러레이션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의 참가자가 동시에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공개 피칭(public pitch)이나 데모데이(demo-day)에서 발표하는 과정<sup>3)</sup>으로 정의

3) Susan G. Cohen, Yael V. Hochberg(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p.4.

-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자는 액셀러레이터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sup>4)</sup>
- 일본 (주)리노베링은 2011년 8월 기타큐슈에서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리노베이션 스쿨’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
  - (주)리노베링은 민간 주도의 현장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를 사전 조사, 리노베이션 스쿨, 투자 유치, 후속 교육, 지역관리회사 설립 지원, 개별 공간 창업 지원 등의 절차로 약 6개월에 걸쳐 진행
  -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는 반경 200m의 ‘스몰 에어리어’를 설정해 건물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의 창업과 부업을 유도
  - 리노베이션 스쿨은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유희공간이 있는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일정 수의 팀을 이뤄 사업계획 아이디어를 경험 있는 기존 창업자의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고 건물주, 관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화하는 과정
  - 2011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일본 35여 개 지자체에서 70회 이상의 리노베이션 스쿨이 진행되어 2,817명이 유료로 프로그램에 참가

## ■ 국내의 도시재생 액셀러레이터 적용 시도: 군산시 액티브로컬

- 군산시 1기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단위사업인 영화동 영화시장을 대상지로 진행
  - 영화시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미곡상이 밀집해 있다가 1960년 들어 미군기지 관련 유희업소, 상가 등이 조성되면서 아메리카 타운으로 불림



영화시장 위치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4의 2

- 군산시가 1970년대 영화동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산북동으로 아메리카 타운을 이전시키고, 1980년 제61회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건물을 재정비하면서 영화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내수 시장으로 재편
- 군산 원도심에 위치하는 영화시장은 193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전통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해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영화시장 내부는 총 33개 점포가 있으며 그중 2017년 12월 조사일 기준 영업소는 13 곳에 불과
- 2017년 7월 도시재생 스타트업인 블랭크, 로컬디자인무브먼트, 어반하이브리드가 ‘액티브로컬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군산시 ‘액티브로컬 캠프’를 주도적으로 진행
  -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영화시장 재생을 위해 2017년 7월 액티브로컬 컨소시엄이 군산시 영화동의 지역성과 한국 도시재생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액티브로컬 캠프를 민간 주도로 구상
  - 2017년 8월 블랭크 건축사사무소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영화시장 내 임시거점 공간을 무료로 임대받아 상주하며 액티브로컬 캠프 사전 준비 진행
  - 2017년 8월 칼 갈아주기, 음식 공유하기, 커뮤니티 댄스 등 총 13회의 이벤트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존 상인과 공감대 형성
  - 2017년 9월 지역 내 창업 희망자 및 특색 있는 최근 창업자들을 찾아 캠프 참여 의사 및 캠프 기획 방향 관련 인터뷰 진행
  - 2017년 10월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 창업하기’로 캠프 방향을 설정하고 사전 설명회 방식의 미니캠프 4회 실시
  - 2017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블랭크 건축사사무소 등 액티브로컬 컨소시엄 주도로 액티브로컬 캠프 실시
  - 2018년 1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동네발전소 팀이 후속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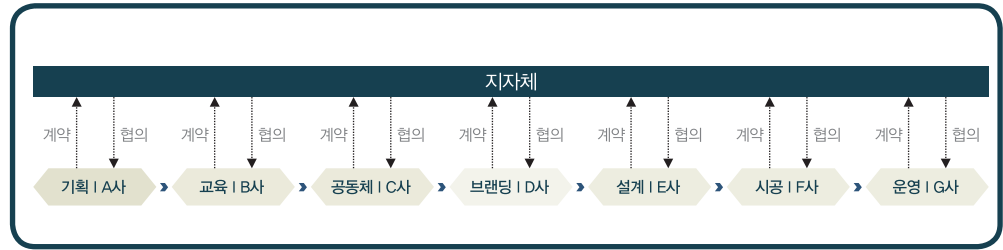
액티브로컬 캠프 프로그램

일차	시간	장소	메인 프로그램	내용
1일차	13:00-14:00	강당	참가자 등록, 개회식 - 프로젝트 소개 - 마스터 소개	
	14:00-15:00	강당	팀 매칭 - 팀별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팀별 소개 기록지 만들기 (조 구성원 소개,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
	15:00-17:00	강당	상권 지도 만들기 - 상권 현황 PT(10분) - 팀별 상권 분석(현장 답사 및 대상지 분석) - 팀별 발표, 공유	상권 분석 내용 공유 - 팀별 상권 분석 결과 공유
	17:00-18:00	회의실	팀별 저녁식사	
	18:00-18:30	강당	영화타운 마스터플랜 PT	
	18:30-22:00	강당	개별 아이템 디벨롭(팀별 작업)	
	22:00-23:00	강당	회고 회의(마스터 대상)	멘토링 내용 피드백 및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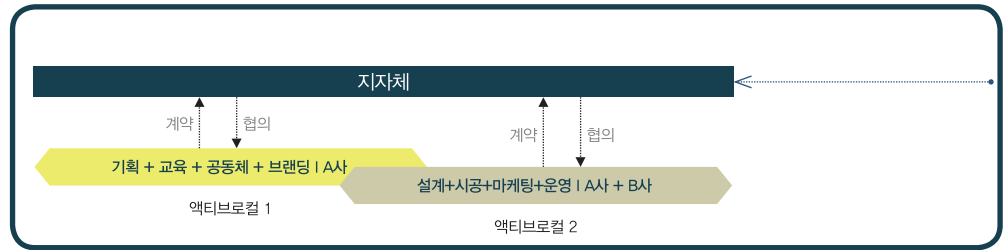
일차	시간	장소	메인 프로그램	내용
2일차	09:00-10:00	강당	토크 콘서트	콘텐츠 발굴에 대한 경험 -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강연
	10:00-16:00	회의실	개별 창업 아이템 디벨롭	영화타운과 어울리는 개별 아이템 선정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16:00-18:00	강당	중간 발표회 1 (개인별 창업 아이템)	PT 발표(콘셉트, 아이템, Biz 모델 등) - 시연, 시제품, 퍼포먼스 등 - 발표(5분)+피드백(5분)
	18:00-19:00	각 팀별	팀별 저녁식사	
	19:00-21:00	강당	중간 발표회 2 (개인별 창업 아이템)	PT 발표(콘셉트, 아이템, Biz 모델 등) - 시연, 시제품, 퍼포먼스 등 - 발표(5분)+피드백(5분)
	21:00-22:00	강당	1차 선정자 발표	최종발표 대상자 선정(50% 내외)
	22:00-23:00	강당	회고 회의(마스터 대상)	멘토링 내용 피드백 및 협의
일차	시간	장소	메인 프로그램	내용
3일차	09:30-14:00	회의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최종 프리젠테이션 준비	프리젠테이션 +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 형식의 발표 준비
	14:00-17:00	강당	최종 발표	PT 발표(콘셉트, 아이템, Biz 모델 등) - 추가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 - 발표(5-10분)+피드백
	17:00-18:00	강당	시상 및 폐회식	심사 총평 - 향후 리워드 안내

- 산발적이던 교육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교육 전후의 재생사업 연계형 프로그램 도입
  - 근린 상업지역 재생의 기획, 교육, 공동체 만들기, 공간설계, 브랜딩,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분할하지 않고 교육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재생 사업 진행
  - 액티브로컬 컨소시엄이 전체 영화시장 프로젝트의 전반부인 지역 조사, 지역 상인 공동체 만들기, 부동산 소유주 협상, 영화시장 브랜딩, 액티브로컬 캠프 기획 등의 사전 작업을 담당
  - 지역 기반 활동가 · 예술가 · 사업가이자 액티브로컬 캠프의 멘토단이었던 조권능 대표가 지역관리회사(Area management company) (주)지방을 설립하여 액티브로컬 캠프를 통해 구성된 예비 창업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고 설계, 시공, 마케팅, 지속적인 운영관리, 신규 점포 입점 등을 총괄하는 후반 작업을 담당
  - 액티브로컬 캠프 진행과 준비 과정을 통해 영화시장 재생 사업 전반부를 담당하는 액티브로컬 컨소시엄에서 후반부를 담당하는 (주)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업무 연계

〈기존 도시재생 사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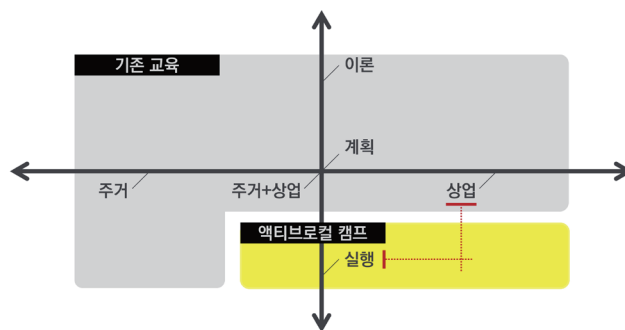


〈액티브로컬 사업 방식〉 ① 사업 일관성 향상 ② 사업기간 단축



기존 도시재생 사업 방식의 한계와 액티브로컬의 개선 방안

- 근린 상업지역의 실행 단계에 최적화된 새로운 교육 방안 제시
  - 지역 분석, 콘텐츠 고도화, 사업 방안 구체화, 재무 계획, 투자 유치 계획, 공간 계획, 운영 계획 등 상업 지역의 최적화된 실행 단계 교육으로 구성
  - 캠프 기간 중 대상이 되는 영화시장을 수시로 관찰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기 쉽도록 영화시장 인근에 교육장을 두고 2박 3일 단기 집중형 실전교육으로 구성
  - 연구자, 교수가 아닌 쇠퇴지역 재생 경험이 있는 상업공간 운영자로 액티브 마스터 (멘토링 및 프로젝트 실무 컨설팅)<sup>5)</sup>를 구성하여 2박 3일 전 일정 동안 참여자들의 사업계획서 현실화 및 계획 내용 향상을 지원



액티브로컬 캠프의 교육 단계 및 교육 범위

5) 군산시 액티브로컬 캠프의 액티브 마스터는 군산시 나섬의 조권능 대표, 광주광역시 컬처네트워크의 윤현석 대표 · 김솔 이사, 제주도 비젠빌리지의 최정훈 대표, 시흥시 빌드의 임호묵 부대표, 서울시 론드리프로젝트의 이현덕 대표, 서울시 상생장의 나영규 대표 · 좌서경 디자이너가 담당



- 직접 이해관계자를 액티브로컬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지원
  - 대상지 내의 불특정 다수 시민, 상인이 아닌 실제 공간을 운영할 공간 운영 희망자만을 참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건물소유주가 직접 최종 발표 시 참관
  - 액티브로컬 캠프 참여자 전원은 학습이 목표가 아닌 실제 영화시장에 사업을 실행 또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임대할 직접 이해관계자로만 구성하여 집중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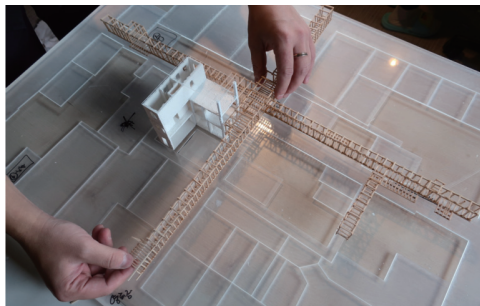


거점공간 중심으로 총 13회 기존 상인 만남 개최



총 4회 사전설명회 '미니캠프'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로컬디자인무브먼트가 제안한 영화시장 콘셉트



팀별 현장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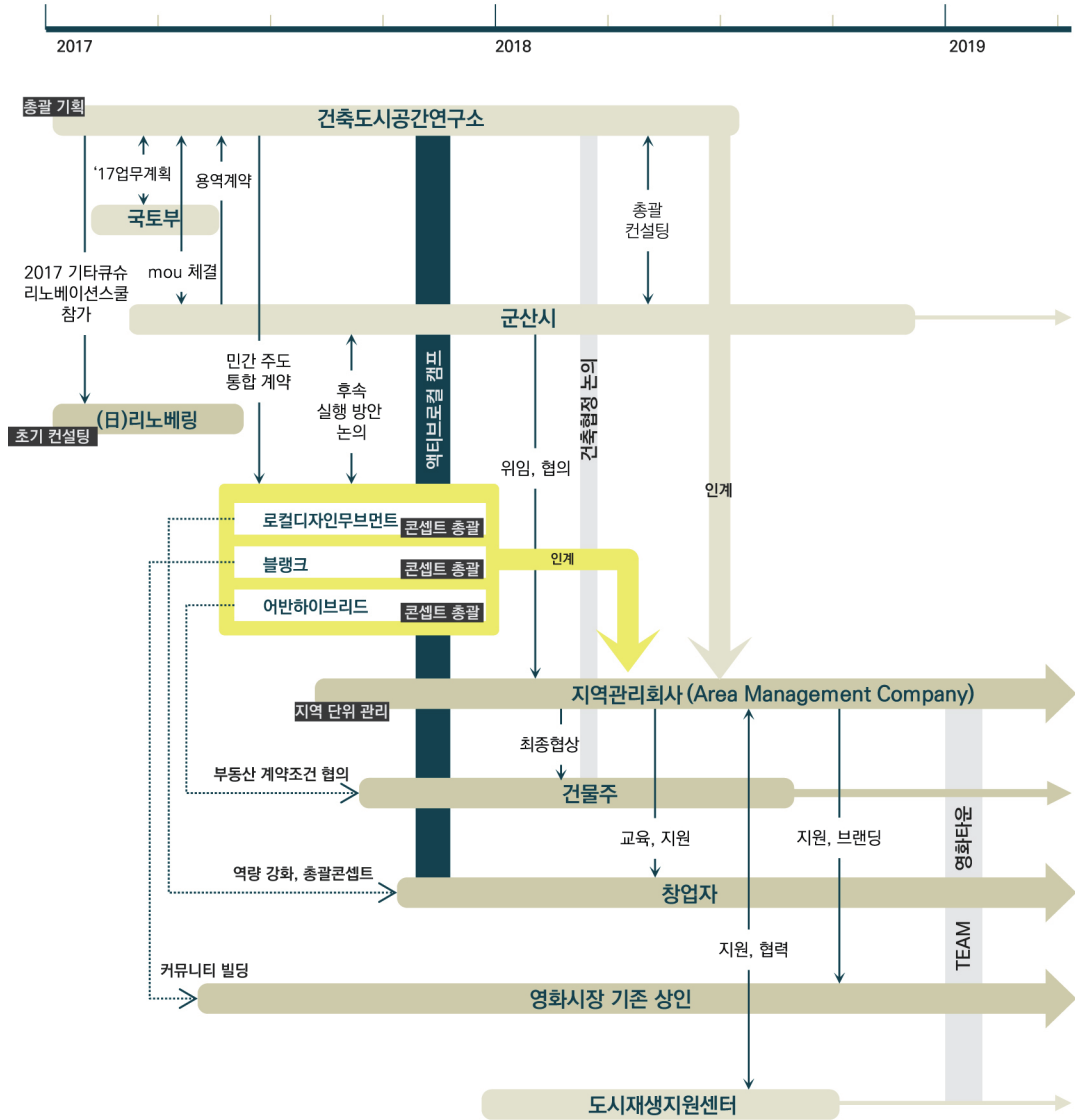


팀별 창업 아이템 개발



최종 발표회(데모데이)





액티브로컬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도

### 3 액티브로컬의 의의와 시사점

#### ■ 액티브로컬 캠프의 의의

- 민간이 기획, 공공은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민간 주도 교육 프로그램
  - 사업 유형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도시 재생 교육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맞춤형으로 4개월가량 사전 기획한 후 적용

- 소규모 상업지역에서 거점공간 운영 경험이 있는 액티브로컬 민간 컨소시엄이 주도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군산시 등은 민간이 기획한 내용이 국비지원 사업의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역할 수행
- 지역 내 혁신 실행가들의 발굴
  - 인구 27만 중소도시 원도심이라는 제약조건으로 예비 창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8팀 선정 과정에 75팀이 접수하였고,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군산시 여타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
  - 산발적인 장소에서 창업을 하거나 밀집된 곳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웠던 기존 창업 방식과 달리, 한 지역에서 지역관리회사의 지원 아래 동시에 창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발생 가능
  - 단일한 점포가 아닌 지역 단위로 경쟁하기 위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리노베이션 스쿨의 기본 방향성을 적용하여, 영화시장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지역재생 기획사인 지역관리회사가 창업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결집
- 지역 간 개별 혁신 실행가들의 연계
  - 액티브로컬 캠프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도시재생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예비 창업자와 도시재생 스타트업 간의 교류가 시작
  - 상업지역에서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장단점과 사업 방식을 교류하고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초기 창업자와 공유하면서 도시재생 실행 단계의 전체적인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
- 자립형 도시재생 창업 모델
  -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의한 공공의존형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춘 자립형 재생 모델 제시
  - 보조금의 핵심 투입 단계가 시공 단계에서 기획 단계로 이동함으로써 지역 분석과 운영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재생 창업의 가능성 향상
- 도시재생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확대
  - 일본 리노베이션 스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군산시의 액티브로컬 캠프 이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제주도 원도심에 일본 원형의 리노베이션 스쿨 취지를 최대한 살려 2018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를 성공적으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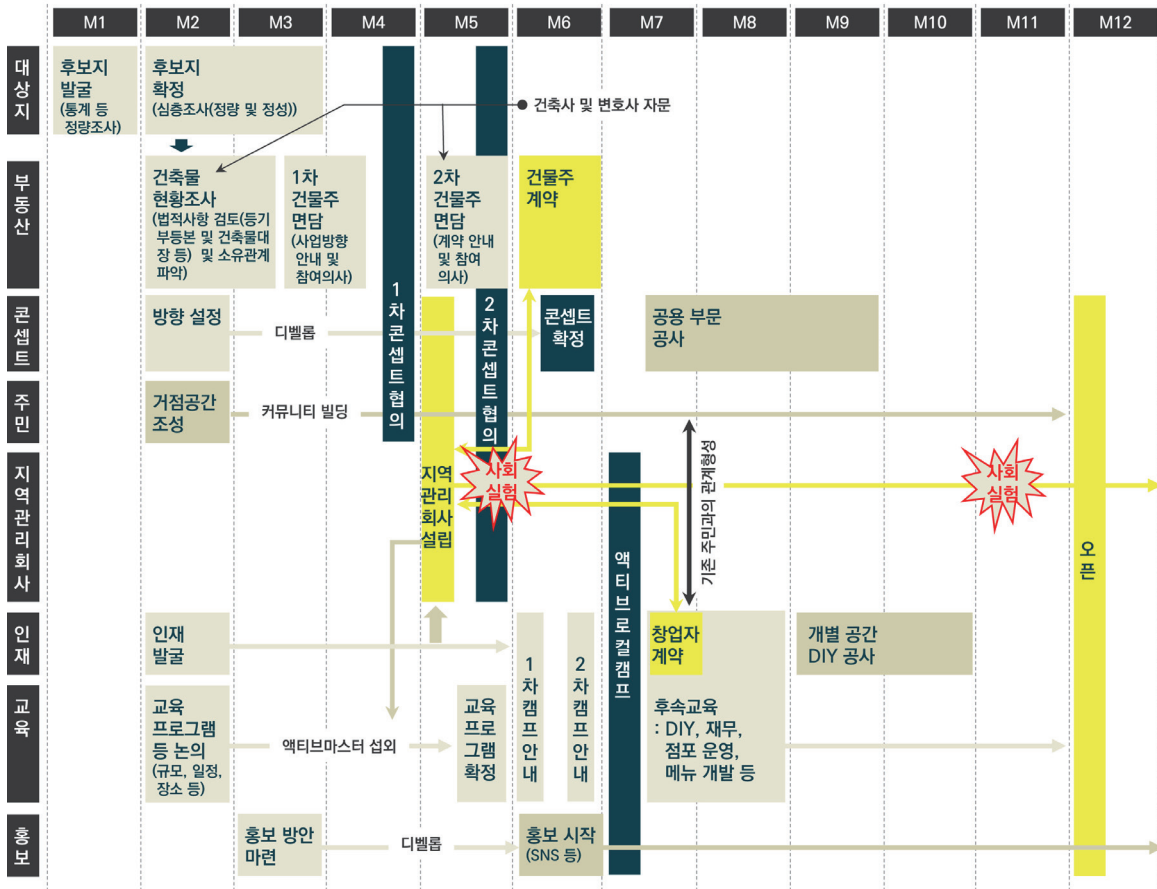
## ■ 액티브로컬 캠프의 평가 및 개선점

- 기획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 필요
  - 기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불법 요소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건축물 처리 방안 협의 문제가 액티브로컬 캠프 이후 발생하여 전체적인 사업 지연
  - 기획 단계에서 대상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건물주와 임대 기간, 임대료에 대한 계약 조건 등을 미리 파악·확정함으로써, 사업화 단계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시간을 줄이고 사업을 빠른 시간에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가능
- 중간조정자의 명확한 역할 수행 필요
  - 다수의 민간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새로운 변수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려야 하는 액티브로컬 캠프의 특성상, 관련 주체 간의 신뢰를 유지시키고 제도적 문제를 풀어내는 중간조정자 역할이 중요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같은 중간조정자의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 인식·수립하여, 주체 간 원활한 합의를 지원하고 제도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

## ■ 근린 상업지역 실행 단계의 실전형 교육 모델 제안

- 실천의 장으로서 교육의 목표 재설정
  - 실행 단계의 교육은 도시재생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닌, 공간을 운영할 실행주체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전형이 되어야 함
- 도시재생 단위사업과 연계된 교육 진행을 위해 충분한 기획 기간 및 예산 배정
  - 도시재생 단위사업 실행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실행 및 운영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이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전에 지역에 대한 정량·정성적인 조사와 교육 이후 공간 설계, 공간 시공, 지역관리조직 구성 등의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팀은 전체 단위사업 기획 및 실행 전반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
  - 교육은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도시재생 대상지에 배포하는 방식이 아닌, 개괄적인 가이드라인 이후의 작업은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및 실행 방안 통합 기획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방안을 마련
  - 사전조사, 교육, 브랜딩, 공간 설계, 시공, 마케팅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팀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이 아닌 일괄 발주하는 방식 고려 필요
- 의사결정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일원화된 기획팀 구성
  - 상시적으로 교육 전후 과정을 준비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공공과 민간 팀, 관련 이해관계자를 아우르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단일한 팀으로 기획팀 구성 필요

- 기획팀에 리스크 관리 계약을 통한 세분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 지역에 대한 충실한 법적 검토, 건물주 공감대 형성 및 사전 계약, 지역 내 인적 자원 발굴 등의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민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사업 단계별 예상되는 리스크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위기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밀한 계약이 필요



도시재생 액셀레이터 프로그램 제안(1년 과정)

윤주선 부연구위원 (044-417-9844, zsyoon@auri.re.kr)

이혜원 연구원 (044-417-9825, hwlee@auri.re.kr)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박소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http://www.auri.re.kr)

